

적자 시달리는 효성화학... 자산매각 등 위기 극복 총력전

이건중 대표, 재무개선 의지 표명
모회사 효성에 일부 사업부 매각
“충분히 회생 가능한 사업구조 갖춰”

석유화학업종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효성화학이 적자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여파로 주가거래가 정지되는 등 경영 불안이 심화된 가운데 모회사 효성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핵심 사업의 수익성이 살아나지 않는 이상, 위기 해소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지난해 325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23년과 2022년에도 각각 3469억원, 4088억원의 손실을 내며 3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적자 폭은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수천억 원대 손실이 지속되며 재무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생산 공장. /효성

공장가동률 또한 지난해 76%로 집계돼 전년대비 10% 하락한 수치다. 같은 해 말 효성화학은 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사업부를 9200억원에 매각하며 자본금 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부채는 3조 3400억원에 달하며 2022년대비 10% 증가했다.

이처럼 재무 상황이 나빠진 배경에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기대했던 베트남 공장의 부진이 지목된다. 효성화학은 지난 2018년부터 약 2조원을 투자해 베트남에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을 설립했다. 그러나 PP시황 둔화와 현지 운영 불확실성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양도가액 1500억원에 지주사 효성에 온산탱크터미널 사업부를 양도하기도 했다. 아울러 옵티컬 필름과 필름 사업부 매각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화학은 지난 3월 26일 “주관사를 선정해 옵티컬필름, 필름사업부 등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공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석유화학업황이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단기적인 자산 매각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는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를 갖추지 못하면 본질적인 경영개선이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효성화학이 그룹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베트남 사업 등 전략적 영역을 살리기 위해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현재 자산 매각으로 급한 불을 끈 수준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업황 회복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성화학의 경우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회생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중 효성화학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 구조 개선과 사업 효율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건전한 재무 구조 개선 없이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핵심 사업에 집중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현금흐름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용절감 방안을 실행해 왔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현대차, 美 가격조정 검토... 인상 가능성

자동차 관세 후폭풍

美 자동차 가격 평균 11% 상승 전망
토요타 동결 예고... 시장영향 주목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가 잇달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추가하면서 업계에서는 현지 자동차 판매가격이 최대 12%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가격 조정을 검토하는 반면 토요타는 고정비 감축을 통한 가격 동결을 예고해 향후 시장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글로벌 투자회사 JP모건체이스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여파로 미국 자동차 가격이 평균 11%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상 금액은 모델에 따라 5000~1만5000달러(한화 약 700만~2000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미국 달러사를 대상으로 판매 가격 정책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은 현지 달러사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다.

랜디 파커 HMA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 현지 딜러에게 서신을 통해 “4월 2일 이후 도매 물량에 대한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현지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앞서 페라리는 지난달 27일 올해 재무 목표를 확정하면서 일부 모델의 가격을 최대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요타는 관세 부과에 따른 가격 인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토요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의향이 없다”며 “이를 대신 고정 비용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생산 비용과 인건비, 마케팅, 연구개발 등에 있어 당장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관세 25%의 가격 인상요인을 상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익성 일부를 포기하는 대신 이를 계기로 미국내 점유율을 확대하거나 유지하는 데 집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불리 발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의 부품별로 관세 부과 일정은 다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높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차도 가격 인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공개

연내 아시아·중동 등 출시 예정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관성처럼 여겨지던 소형 전기차(EV)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디자인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31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피치스 도원’에서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디자인 콘셉트카 ‘INSTEROID(이하 인스터로이드)’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인스터로이드는 현대차의 EV터어라운드를 이끌 소형 전기 SUV인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에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혁신적 디자인을 더해 제작됐다.

현대차는 ‘인스터(INSTER)’의 유니크(Unique)하고 경쾌한 정신에 ‘강화

하다’라는 뜻의 ‘스테로이드(STEROID)’를 결합한 인스터로이드라는 이름을 통해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강조했다.

인스터로이드는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을 과감하고 독특하게 풀어낸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실용성과 주행의 즐거움을 겸비한 인스터에 비디오 게임적 요소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특히 인스터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성을 살리면서도 확장되고 넓어진 바디, 21인치 휠, 공기역학 요소가 돋보이는 윈드스포일러, 휠 아치 공기 플랩 등이 결합돼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차량 내부는 몰입형 사운드스케이프, 유니크한 콕핏을 통해 보다 몰입감



현대차 디자인 콘셉트카 ‘인스터로이드’.

있는 디지털 경험을 더했다.

여기에 계기판과 사운드 디자인, 차량 외관 및 내부 곳곳에 인스터로이드를 상징하는 ‘부스트’ 캐릭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개성과 취향을 중시하는 운전자에게 커스터마이징의 재미를 제공할 것으로 회사는 기대했다.

현대차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중동, 중앙 및 남미 일부 시장에 인스터를 출시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삼성전자 주요조직 인사

노태문 사장, DX·MX 사업 이끈다

(디바이스경험·모바일경험)

DX 부문장 직무대행 내정

삼성전자가 고(故) 한종희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공석이 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 직무대행에 노태문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 사장(사진)을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신속한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1일 DX부문과 MX사업부, 디지털가전(DA)사업부 등 주요 조직에 대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통해 노태문 사장은 DX부문장 직무대행을 겸임하며, 기존의 MX사업부장과 품질혁신위원장 역할도 지속 수행한다.

노태문 사장은 1968년생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MX사업부 개발실장, MX사업부장을 역임하며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갤럭시 신화를 이끄는 등 모바일 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 온 주역으로 평가받는다. 2010년에는 갤럭시S 개발 공로로 ‘자랑스러운 삼성인상 기술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MX사업부장을 맡아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기여해



왔다. 노태문 사장이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MX사업부의 운영을 총괄할 새로운 최고운영책임자(COO) 직책이 신설돼 최원준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글로벌운영팀장 사장이 선임됐다.

최 사장은 켈릭 출신으로, 삼성전자 입사 후 MX사업부 차세대제품개발팀장, 전략제품개발팀장, 개발실장을 거치며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주도한 스마트폰 전문가다. 향후 그는 MX사업부 COO로서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디지털가전(DA)사업부장은 김철기 MX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 부사장이 선임됐다. 김 부사장은 삼성자동차에 입사해 부품기술 및 품질 업무를 담당한 후,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가전, TV 등 다양한 제품군의 영업을 경험하며 기술과 영업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혜민 기자 hyem@

마우로 포르치니 디자인 총괄사장 임명

글로벌 디자인 조직 총괄 예정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산업 디자이너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디자인책임자(CDO·사장)로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인 디자인 총괄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치니 사장은 이탈리아 출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공대에서 산업디자인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필립스에서 제품 디자이너로 시작해 3M과 펍시코에서 CD0를 역임하는 등 글로벌 디자인 업계에서 명성을 쌓아 왔다.

포르치니 사장은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디자인 조직을 총괄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